

지역 소식통

고창군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교육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심덕섭, 민간위원장 정종만)가 26일 고창군 군민복지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 및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실무자, 협의체 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창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고창군은 9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41명으로 구성, 선임된 외부이사는 이사회에 이사로써 법인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친환경인증농지
안내 표찰 제작 배부

정읍시는 올해 친환경인증농지 1420농지 중 1/3에 해당하는 452농지에 친환경인증농지 안내 표찰을 배부했다.

최근 농업인 노령화와 농촌인력 부족, 농업기계의 혁신·변화로 과거와 달리 드론 등 무인방제 시스템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 농지에 까지 비산농약이 유입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피해를 줄이고자 친환경농자임을 알릴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 농지 농약살포 주의 라고 표기된 안내 표찰을 제작·배부해 비산농약 유입 불안함을 해소했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친환경농업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모 선정

부안군 진서면 것갈제조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공모에 부안군 진서면 것갈제조업이 25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수(종사자 10인 미만 제조업자)가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군의 읍·면은 20인 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자체 신청에 따라 사전검증 및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고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곱소젓갈 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내 소공인을 위해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할 수 있는 거점형 복합지원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4일 공고를 시작으로

7월 사전·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부안군은 이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선정으로 올부터 3년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총 50억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의 주요사업은 진서면 곱소젓갈제조업 소공인 거점형 복합지원센터로 구축하고, 공간구성은 제조·생산, 품질관리, 마케팅,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분하고 가능별 로 액젓 소포장 시설, 특화소(양념젓갈) 제조시설, 품질관리실, 상품개발실, 세미나실, 청년 스타트업 창업실 등 공동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소공인 역량강화, 제품개발,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S/W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곱소젓갈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곱소젓갈을 활용한 군 특화소스 개발 및 2024년 출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 창업실은 청년 창업과 연계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단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창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곱소젓갈 식품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의 시기를 맞췄다"며 "다양한 소비층에 대한 트렌드에 대응하고 곱소젓갈 소공인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 기반조성, 군 특화소스 신상품 개발 및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곱소젓갈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집중호우 피해 임가 현장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 임상섭 산림청 차장과 피해지역 살피고 예방활동 펼쳐

권익현 부안군수와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지난 25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 보안면 부안로 일대 임가를 방문해 피해지역을 살피고 주변 예방활동을 펼쳤다.

보안면 부안로 일대는 이번 집중호우로 표고부처배지 3,000봉, 측백나무 묘목 2,000주 등 약 1,9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부안군은 지금까지 집중호우 기간(7.13.~7.25)동안 산사태 2건/0.8ha, 산림자물 3건/0.5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다.

권익현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임상섭 차장에게 피해 현황을 설명하면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서 많은 임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한순간 일터를 잃은 임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배드민턴 국가대표후보선수 하계 전지훈련

고창군에서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선수 70여명이 고창군립체육관과 실내체육관에서 지난 20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하계 전지훈련을 진행중이다.

이번 전지훈련은 강도 높은 체력훈련뿐 아니라 순발력, 지구력 등 다양한 하계 훈련이다.

선수과 코칭스태프 100여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전지훈련팀이 훈련을 이어나가게 됨에 따라 긴 장마로 침체된 고창군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관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편의점, 치킨집 등에서는 모처럼 밀려드는 주문에 한박웃음을 짓고 있다.

고창구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은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협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신 고창군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산림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이뤄지는 배드민턴 국제 후보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정읍시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쯤쯤가무시증, SFTS 등이 있다. 쯤쯤가무시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과 특징적으로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형성된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1~2주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소하기 증상인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또 출혈성으로 혈뇨, 혈변 등의 증상도 있다. 쯤쯤가무시증과는 달리 중증의 경우 혈액,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치명률 또한 20%로 무서운 감염병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작업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토시, 장갑, 장화 등 안전하게 농작업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조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야외활동 후에는 작업복을 다른 세탁물과 분리 세탁해야 하며, 전신 샤워를 하면서 특히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구토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단비 되길”

정읍시, 민생경제 회복 주력... 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정읍시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공

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월 7일~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50만원이며,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군, 진서면 곱소 수소 충전소 준공식

부안군은 26일 진서면 곱소스마트복합센터에서 곱소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원택 국회의원, 김광수 부안군의회의장, 김경기 도의원, 김술지 도의원, 황영석 도의원,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충전소 시설과 수소충전 시연 등을 관람하였다.

진서면 곱소 수소충전소는 부안군 두 번째 수소충전소로 국비 15억원과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13억원의 총

35억5,000만원을 투자해 건설되었으며 압축기 2대로 시간당 승용차 7대, 트럭 2대를 충전할 수 있다.

전국의 군단위 지자체 중 수소충전소 두곳 이상을 운영하는 곳은 부안군이 최초로 현재 수소전기 승용차 220대가 민간에 보급되었고 전북도에서는 최초로 수소트럭 청소차 1대를 운행 중에 있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배출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노후화 된 농어촌버스 4대를 수소전기 저상버스



로 대체할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노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 시스템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